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Hand in Hand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3) 전주 문화재단 '아트뱅크'

■광주 茶人들 화순 전남대병원서 특별한 행사

문화 경험 쌓고 나누는 행복한 '예술 은행'

지난 4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창작소극장에서는 '창작극회'의 '데이트'가 공연됐다.

잠시 후 연출가 전준근씨가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자 전씨는 작품의 의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앞으로 '데이트'의 입소문을 내는 홍보맨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3월 2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주시립극단이 '햇소동'의 최종 리허설 현장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연출자가 배우들의 동선과 연기를 조율하는 모습 등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연출자, 배우와 대화도 나눴다.

특히 전북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했던 고등학교 연극반원들이 참여, 프로 극단들이 음향과 조명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대해 생생한 '수업'을 받아 교육적 효과도 높았다.

두 가지 행사는 모두 전주문화재단이 '1%의 문화 나눔을 통한 100% 문화 만족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진행중인 '아트뱅크(Art-Bank)' 프로그램이었다.

'아트뱅크'는 전주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서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교환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문화은행'이다.

'아트뱅크'가 기존의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건 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교환'이라는 점이다.

재단측은 일반 시민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만 의미있는 역할을 나눔으로써 '문화'와 좀 더 친근해지고 지역 문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참여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이 참여한 문화 행사의



전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아트뱅크'는 문화 나눔 신청을 한 문화예술인과 일반 시민들의 희망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일 창작소극장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 모습.

'1%의 문화 나눔' 프로젝트... 문화적 가치 제공·교환

문화예술 특강·공연 관람 등 시민 참여 점차 늘어

홍보·모니터링 요원이나 관객 안내 등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고, 음향·의상·조명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

사업 초창기라 아직은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의 마인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은 사업 시행전인 지난해 3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장 많았고 문화예술 특강 및 교육, 지역 문화 행사 및 공연 관람, 공연 리허설 참관 및 작업실 견학, 문화 공간·시설 대관, 문화계 인사와의 만남 등이 주요한 사항이었다.

예술인들은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이 론특강 및 정기 레슨, 문화공간 및 시설 대관, 작품 도구 및 장비 음향기 기 대어 등이라고 답했으며 문화예술인네트워크, 의상 및 관련 소품 대어, 타 지역 문화예술 특강 등을 필요로 하는 혜택으로 꼽았다.

재단측은 현재 무용, 문학, 미술, 영상·영화 등 5개 분과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작업실 탐방 및 작가와의 대화 ▲벽화 제작 참여 ▲연극 리허설 및 제작 과정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지역 예술계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18일에는 지역 극단이 공연의 무료시연회와 연출가와 배우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고, 오는 30일에는 서양화가 김춘순씨의 작업실을 방문, 작품과 예술관을 살펴보고 그림 감상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 미술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지금껏 문화 사업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경험을 쌓게 해주는 쪽으로 진행돼왔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문화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전주문화재단 이태호 정책실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예술인들의 호응이 높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전주=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꽃차문화아카데미 등 광주지역 다인들은 오는 28일 전남대병원에서 '아름다운 들차회' 행사를 갖는다. 매주 수요일 전남대병원에서 진행되는 '차 한잔의 침터' 행사 모습.

차 시음회·작은 음악회로 환자·보호자에 희망 선사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위한 차 나눔 행사인 '차 한잔의 침터'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 지역 다인(茶人)들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한꽃차문화아카데미, 증심사 자향화, 원각사 다도팀은 2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 야외 광장에서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는 무료 차 시음회와 다식, 화선 등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들차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낮12시20분부터 병원 야외광장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유상호씨 등이 참여하는 향기로운 음악-작은 음악회도 열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한꽃차문화아카데미 측은 지난 2006년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팀별로 무료 차시음회를 열어왔으며 생동하는 봄을 맞아 전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한꽃차문화아카데미 김영섭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열리는 차시음회는 매주 1천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 봄 가을 두차례 정도는 전 회원이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시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건물 매매.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매매, 임대, 분양. 7억 5천 고시원 매매. 공점 급매. APT1800세대 마트점 목적용. 임대 시외방 180만P.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감정가50%공시지가50%이하 물건 긴급매매. 현금투자 최우선 긴급매매. 2007년도 광주지역 예시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사할부지 및 사할(절). 매매·교환·개방·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임대·교환. 투자. 매매·교환.